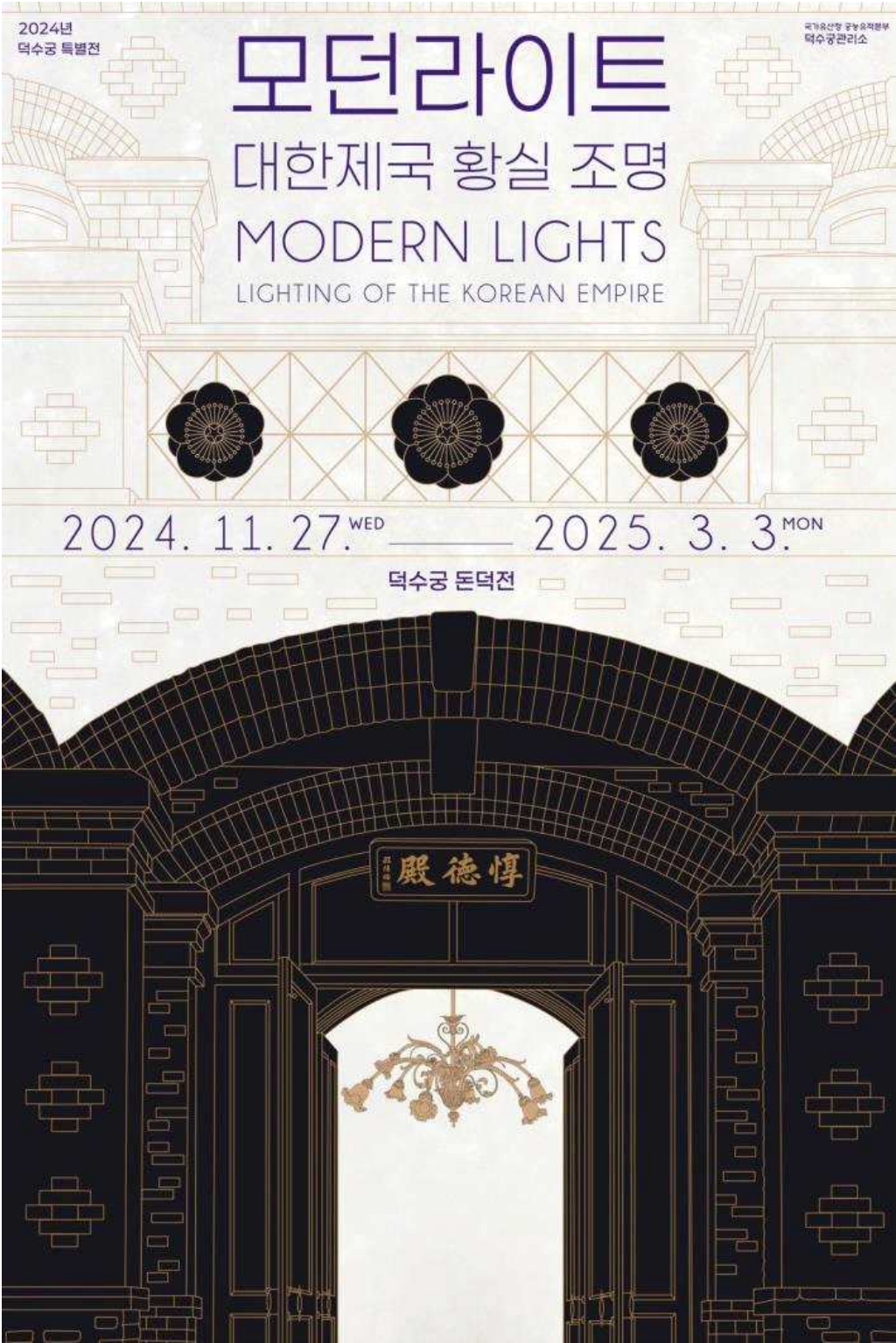


(붙임 1)

홍보물



(붙임 2)

## 사진자료(특별전 전시작품)



100여년만에 제자리 찾은 돈덕전 <이화문 상들리에>(사진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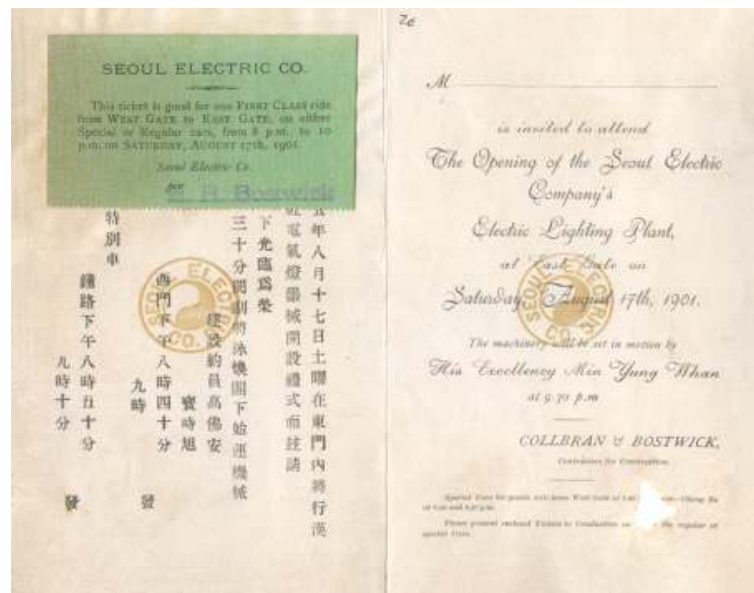




## 에디슨 전구

Edison Light Bulb, 1890~1910년대, 한국전력공사 전기박물관

에디슨전등회사Edison Lamp Company에서 제작한 전구로 에디슨의 특허 번호와 전구의 모델 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에디슨은 전등의 사용 시간을 늘리기 위해 무명실, 종이, 대나무 등을 전구의 탄소 필라멘트로 이용하는 전구를 개발하여 백열전등을 확대 보급하였다.



## 한성 전기등 개설 예식 초대장

1901년, 17.7×11.3cm, 한국전력공사 전기박물관

전기등 개설 예식(1901년) 초대장과 예식에 참석하는 귀빈들을 위해 동봉한 상등석 전차표이다. 1901년 6월에는 한성 시내에 모두 600등의 전기등이 보급되자 한성전기회사는 이를 기념하고 전등사업의 개시를 알리기 위해 1901년 8월 17일에 전기등 개설 예식을 진행하였다. 이후 한성전기회사의 전기를 통해 1901년 덕수궁에 6개의 전등이 설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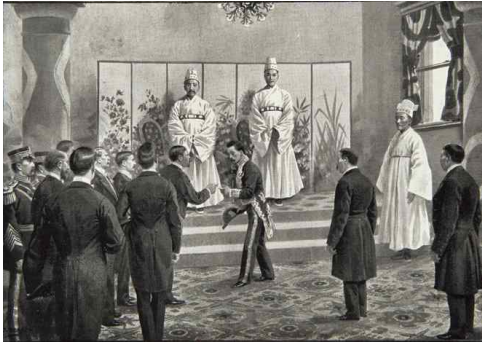
## 이화문 상들리에

李花文二段多燈式掛燈

미국, 20세기 초,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 Company, 금속, 폭: 137.5cm, 높이: 99.0cm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 Company(GE)에서 제작한 이화문李花紋[오얏꽃 문양] 대형 상들리에로, 로코코Rococo 양식의 식물 문양이 활용된 제품이다. 전등 가지 덩굴마다 대한제국 황실 문장이 오얏꽃이 부조 장식으로 달려있다. 각 등갓 홀더에 오얏꽃의 꽃잎이 묘사되어 있으며 표면에는 금색의 도료를 바른 흔적이 있다. 황제를 위한 황금빛 공간에 어울리도록 황실 상징인 오얏꽃 문양의 도안을 보내 주문 제작한 것이다. 돈덕전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



1904년 돈덕전 집견실(추정)에 설치되어 있었던 상들리에

1904년, 11 x 13.3cm, 개인소장

1904년 영국에서 발행한 신문(The Illustrated London News , 1904.08.27.)에 실린 것 삽화로 당시 돈덕전에서의 고종 알현 장면을 묘사하였다. 삽화 속 천장의 상들리에는 1883년 에디슨 전기 조명회사의 카탈로그에 실린 식물 문양 상들리에와 유사하다. 이 삽화를 통해 당시 돈덕전에 설치된 상들리에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 Company(GE)에서 제작된 이화문李花紋[오얏꽃 문양] 상들리에로 추정된다.



### 화형 초받침

19세기 말~20세기 초, 유리, 최대지름 16.9cm 높이 10.4cm, 국립고궁박물관

꽃과 줄기 모양으로 조합된 화형花形 초받침으로 영국의 토마스 웹 앤 선즈Thomas Webb & Sons에서 제작하였다. 촛대는 S자로 굴곡진 형태이며, 벌어진 꽃봉오리 형태의 초받침 몸체 안에 작은 초를 넣고 그 위로 돔 형태의 갓을 씌워 사용하였다. 이 화형 초받침은 센터피스라고 불렸던 중앙 장식물의 일부이다. 이러한 형태의 초받침은 현재까지 전해오는 광고 이미지를 통해 각각의 요소가 합쳐진 전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이화문 타원형 등갓

20세기 초, 유리, 입지름 8.2cm 높이 16cm, 덕수궁관리소

타원형의 홍색 유리 등갓이다. 몸체에는 꽃술 20개 또는 25개가 있는 겹꽃형태의 이화문을 세 개 장식했다. 꽃잎과 꽃밥을 제외한 표면은 반투명하게끔 산액酸液으로 부식시켜 점등 시 문양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했다. 홍색 유리는 금이 원료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 유리를 ‘금적金赤’ 색이라 칭하며 가치를 높게 여겼다. 일본 시마다유리제조소島田硝子製造所에서 제작하였으며, 제조가 까다로워 고급품으로 인식되었다. 덕수궁 덕홍전 상들리에의 유리 등갓과 같다.